

# 와인 시장 불황을 이길 키워드... 프리미엄·구세계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77

프리미엄, 구세계. 와인 수입사들이 꼽은 올해 와인 시장 불황을 헤쳐나갈 두 가지 키워드다.

인기가 시들하다고 하나 와인 수입은 정점을 찍었던 당시보다 줄었을 뿐 절대적인 수치는 팬데믹 이전보다 많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수입규모가 2배 이상 훌쩍 늘었으니 우리도 와인 좀 마시는 나라인 것은 분명해졌다. 오히려 유행을 빼고 일상 속으로 와인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무슨 와인을 마실지가 관건이다.

먼저 프리미엄 와인이다. 양보다 질, 싼 값으로 많이 마실 수 있는 와인을 찾던 시대는 지나갔다. 무알콜, 저알콜 주류가 새로운 대세로 떠오를 만큼 술 자체를 덜 마신다. 와인도 한 번 마실 때



(왼쪽부터)로템 뮌니에 사우마 옴니아, 레 쿠플레, 파소로쏘, 프란케티, 로템 뮌니에 사우마 이노피아 블랑. /안상미 기자

제대로 된, 좋은 와인을 마시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다음은 구세계 와인이다. 칠레같은 신대륙이 와인 대중화를 이끌었다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은 와인 종주국은 취향을 한 단계 올리고 싶은 와인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켰다. 목직한 레드와인 일색에서 화이트 와인으로, 레

드와인이라고 해도 우아하고 복합미있는 스타일로 선호가 바뀌는 것도 구세계를 찾게되는 이유가 됐다.

금양인터내셔널은 올해 프리미엄 와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와인 라인업 강화는 물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까지 확충했다. 금양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프리미엄 와인 시장은 단

순히 가격 경쟁이 아니라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탈리아 테누타 디 트리노로, 파소 피시아로나 프랑스 로템 뮌니에 등과 같은 프리미엄와인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업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템 뮌니에’는 부르그뉴의 DNA를 남부 론에 심은 와이너리다. 부르그뉴에서 가장 인기있는 생산자인 ‘루시엔 르무앙’의 두 부부가 론 벨리로 가서 그르나슈 품종으로 승부를 걸었다. 부르그뉴의 피노누아 품종과 같이 그르나슈 역시 우아함과 복합미를 가진데다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한없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로템 뮌니에 사우마 이노피아 블랑’은 그르나슈 블랑이 주품종이다. 과실과 허브향에 미네랄까지 복합적이며, 산미는 선명하지만 우아해 블라인드 테스팅을 했다면 부르그뉴 화이트인가 착각했을 와인이다. 이노피아는 라틴어로 결핍을 뜻한다. 황무지같은 척박한 테루아에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양조 방식이 모두 함축적으로 들어

간 이름이다.

‘로템 뮌니에 사우마 옴니아’는 그르나슈와 쉬라즈, 무드베드르를 섞은 가장 전형적인 샤토뇌프 뒤 파프 와인이다. 옴니아는 라틴어로 모든 것을 뜻한다. 샤토뇌프 뒤 파프의 모든 것을 담고자 하는 의도다.

이탈리아 ‘테누타 디 트리노로’는 전설적인 양조가로 꼽히는 안드레아 프란게티가 토스카나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설립한 와이너리다. 당시만 해도 이탈리아에선 큰 관심이 없던 까베르네 프랑과 메를로 품종으로 ‘테누타 디 트리노로’를 탄생시켰고, 시장에 출시되자마자 이탈리아의 수발 블랑으로 극찬을 받았다.

‘레 쿠플레’는 테누타의 세컨 와인이다. 포도밭을 특성에 따라 50개의 작은 구획으로 나눠 매년 테이스팅에 따라 4~5곳은 트리노로, 나머지는 레 쿠플레를 만드는데 쓰인다. 지난해 테누타에 쓰인 포도나무가 올해는 레 쿠플레 양조에 쓰일 수도 있어 프리미엄 와인 가운데서는 가성비 최고로 회자되는 와인이다. /smahn1@metroseoul.co.kr

## 문화 단신

### 메가박스, 서울 시내버스에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탑재

메가박스가 서울 시내버스에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신규 도입한다. 메가 박스는 새로운 디지털 매체를 공공정보와 광고를 게재하는 플랫폼으로 두루 활용하며 마케팅 매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메가박스가 운영할 신규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은 총 7000대에 달하는 서울 시내버스 중 5000대에 한해 설치된다.

시범운행을 거쳐 올 상반기 내에 설치 완료 예정이다. 디지털 스크린은 선명한 해상도의 37인치 와이드형 LCD를 택했으며 버스 내부 상단에 위치한다.

신규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주요 공식성 정보 서비스로는 GPS 기반의 정류장 정보, 공공안전과 서울시 정책 정보 등이 있다. 이밖에 실시간 교통 상황을 안내



하거나 날씨와 주요 뉴스, 또 생활 및 안전 정보 등도 제공된다. 외부 공공기관과 연계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유용한 실시간 정보까지 폭넓게 전달할 예정이다.

## 주말은 책과 함께

### 정조의 ‘만천명월’이 답하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 서울편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자 세계 굴지의 고도(古都) 서울을 답사한 기록을 엮은 것으로, 4권이 한 세트다. 저자인 유홍준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서울의 위상이 너무 커서 ‘서울공화국’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면서 “최고와 최하가 공존하는 격차가 큰 도시, 서울을 하나로 묶어 동질감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문화유산”이라고 밝힌다.

그는 “역사 도시로서 서울의 품위와 권위는 조선 왕조 5대 궁궐에서 나온다”며 창덕궁의 이야기로 첫번째권을 시작한다. 제목으로 삼은 ‘만천명월주인옹은 말한다’는 창덕궁 존덕정에 걸린 정조대왕의 글에서 빌려 온 것인데, ‘통섭’을 외면하는 우리 시대의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조인이라 소개해보고자 한다.

존덕정은 창덕궁 후원에 있는 아름답고 기품있는 정자로, 인조 때 세워진 이래 숙종, 영조, 정조, 순종 등 많은 임금이 이곳에 와서 시와 문장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그중 단연 으뜸이라 할 만한 건 정조가 지은 ‘만천명월주인옹(만개의 냇물에 비치는 달의 주인) 자서’라는 장문의 글이다. 만천명월의 주인, 즉 임금으로서 해야 할 일이 상세히 기술돼 정조의 통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정조는 “달이 물속에 있어도 하늘에 있는 달은 그대로 밝다”며 “달은 각기 다른 형태에 따라 빛을 비춰줄 뿐이다”고 밝힌다. 물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달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 서울편  
유홍준 지음/창비

이 비취 그 상태를 나타내는 건 사람들 각자의 얼굴이라는 것을 깨달은 정조는 사람은 각자 생김새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이치를 터득한다. 대들보감은 대들보로 기둥감은 기둥으로 쓰고, 오리는 오리대로 학은 학대로 살게 하라는 것.

정조는 “단점은 버리고 장점만 취하고, 선한 점은 드러내고 나쁜 점은 숨겨 주며, 잘한 것은 안착시키고 잘못된 것은 뒷전으로 하며, 규모가 큰 자는 진출시키고 협소한 자는 포용하며, 재주보다는 뜻을 더 중히 여겨 양쪽 끝을 잡고 거기에서 가운데를 택했다”고 말한다.

저자 유홍준은 “통치자의 철학이 밝혀 드러나는 천하의 명문”이라며 “정조는 이처럼 만가지를 생각하고 만가지를 고민하며 지냈다”면서 이것이 바로 나라를 통치하는 자의 마음이고 자세라고 강조한다. 1624쪽, 8만4000원. /김현정 기자 hjk1@

### 롯데엔터, ‘더 테러 라이브: 라스트 쇼’ 스틸 6종 공개

지난 2013년, 558만 관객을 돌파한 김병우 감독, 하정우 주연의 스릴러 영화 ‘더 테러 라이브’의 일본 리메이크 판 ‘더 테러 라이브: 라스트 쇼’가 오는 16일 한국에서 개봉한다.

국내를 대표하는 글로벌 콘텐츠 프로듀서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영화 ‘더 테러 라이브: 라스트 쇼’ 속 폭탄 테러

범과 단독 생존계를 이어가는 일촉즉발 뉴스를 현장 인물들의 각기 다른 시선을 담은 보도 스틸 6종을 공개했다. 폭탄테러범과의 뉴스 생존계라는 파격적인 소재로 극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보도 스틸을 공개하며 이목을 집중시키는 영화 ‘더 테러 라이브: 라스트 쇼’는 16일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개봉한다.



### 영화 택시드라이버 등 ‘메가 온리’ 6개 작품 단독 상영

단독 상영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메가박스 ‘메가 온리’가 4월 라인업을 확정했다.

메가박스가 ‘메가 온리(MEGA ONLY)’ 4월 단독 라인업을 공개했다.

‘메가 온리’는 오직 메가박스에서만 볼 수 있는 모든 단독 콘텐츠를 의미하는 브랜드로 지난달 론칭해 단독 개봉, 단독 상영의 한계를 뛰어넘

고 있다. 4월의 ‘메가 온리’ 단독 상영작은 ▲기동전사 건담 지쿠악스 비기닝 ▲아키라 ▲자전거 탄소년 ▲밴드립! 잇츠 마이 고 전편: 봄의 양지, 방황하는 고양이 및 콜롬비아 픽처스 명작 기획전 ‘토치레이디스 픽’ 상영작 ▲택시드라이버 ▲카우보이 비밥 - 천국의 문 등 총 6개 작품이다.



▲“트럼프 관세, 이게 상호적이냐”... 美 설명에도 석연찮은 계산법 /사진 뉴시스  
▲중국 상무부, 美 상호관세에 단호히 반대... “반격할 것”

▲EU집행위원장, “美 관세, 세계경제 큰 타격”... 대응책 준비 중  
▲미국 재무장관, “타국, 보복 말라... 무역 전쟁, 美 유리”

▲日정부, 尹 탄핵 결과 주시... 역사 문제 강경파 집권 우려“  
▲러시아, ‘젤렌스키 고향’ 크리비리흐 미사일 공격... 4명 사망